

성안드레아 김대건과
 성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
 제 1 독서 : 지혜 3, 1-9
 제 2 독서 : 로마 8, 31b-39
 복 음 : 루가 9, 23-26

순정이

“니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루가 9, 23).

강론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김요한 신부 / 화랑대 천주교회

조선조 4대 세종 때의 학자인 성삼문은 죽음을 다음과 같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동동 북소리는 내 명을 재촉하고, 고개 돌려 바라보니 서산에 해지려 하네. 저승으로 가는 길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밤 이내 몸은 뉘 집에서 묵어갈꼬.” 이 얼마나 죽음에 대한 불안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까?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얼 믿습니까? 그것은 죽음 이후에 되살아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조선시대의 종교는 유교였습니다. 인간이 왜 사는지를 현실성있게 가르쳐주지 않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추상적 이론만을 강조하는 관념적인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파탄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갈증을 느꼈겠습니까? 이때 우리 조상들은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실학운동이 그것입니다. 실학에 심취한 조상들은 매년 여러 번 파견되는 중국의 사신 일행에 끼어 북경을 방문하여 천주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중국말로 서양신부들과 의사를 통하면서 살맛나는 학문을 접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천주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천주교 교리였습니다. 호기심어린 학문으로 접하다가 완전히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신앙 선조들은 열렬한 천주님 팬이 되어갔습니다. 하여 1784년 드디어 한국 첫영세자로 이승훈(베드로)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이렇게 천주님의 열렬한 팬이 되어서 시작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깊고 믿음이 강한 교회였으니 천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천주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내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는 자세였으니 선조들은 순교도 기쁘고 용기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기한 성삼문의 죽음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은 다시는 살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처럼 바야흐로 최상의 행복인 영생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이 최상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하여 우리의 일터에서 순교정신으로 살아갑시다.

한국 순교 성인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소리

“서울평화상”

제2회 서울평화상 수상자가 선정 발표되자 일부 언론에서 존치여부를 묻는 여론을 일으켜 까닭이 궁금하다. 당초 이 상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 ‘2년마다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 시상키로 제정, 원년 수상자로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선정 시상했다.

그리고 서울평화상위원회는 상의 권위를 ‘노벨평화상’ 만큼 높인다면 ‘세계 평화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로 수상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기존 권위있는 상의 답습과 모방에도 전세계의 관심을 모으기엔 역부족, 수상자 선정이 어려웠고 수상자로 선정되도 상을 받을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막후 접촉을 통해 ‘상을 받겠다.’는 후보를 수상자로 선정, 스스로 품위를 실추시켰다.

이번 수상자는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0순위로 내정됐었지만 독립국 공동체의 반대로 상을 받기가 어렵자 제외됐고 방콕시장을 지낸 태국의 잠롱이 거론됐다가 고위층의 압력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결국 조지슬츠 전 미국무장관, 레이전 전 미대통령, 헬무트콜 독일 총리가 경합, 해외 공판을 통한 의사 타진 결과 슬츠가 수상을 수락,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평화상위원회 측은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통역까지 동원 의신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기자들이 불참, 취소됐다고 하니 이 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상금이 30만달러(2억4천만원)라면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처럼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을 계속 존치, 나라 밖으로 거액을 유출해야 할 것인지. 관련선거 시비, 국회의 공전 등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풀어져 있는 요즘 이런 문제 하나라도 국민의 뜻을 읽고 시원한 결단이 내려졌으면 한다. [문]

순정이 산책



“회문산 먹구니에 핀 동정부부”

— 성 김대건의 근족 김도마와 강막달레나 —

동정부부라면 으레 순교자 유중철(柳重哲·요한)과 이순이(李順伊·루갈다)를 연상한다. 그리고 이루갈다의 외사촌이며 1817년에 순교한 권테레사와 조숙(趙淑·베드로) 부부는 역사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천주교의 역사에는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코자 동정생활(童貞生活)을 선택한 상당 수의 ‘동정자(童貞者)’들이 있었지만 동정부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동정부부 생활은 오랫동안 전설 같은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 김대건의 근족(近族) 중에는 동정부부의 역사를 이어준 부부가 있었다. 입전으로 알려진 일이지만 내용은 이렇하다.

임실군 덕치면 회문산 먹구니에는 김대건 신부의 동생 난식(蘭植·방지거)과 그의 재당질(再堂姪)인 김현채(金顯采·도마)가 살고 있었는데, 도마는 그의 아내 강(姜)막달레나와 동정부부생활로 일생을 마쳤다. 그러나 필자에 의해서 이 사실이 밝혀진 1985년 전까지만 해도 종잡을 수 없는 입전이 분분했었다. 그것은 닷할 일이 아니라 한국천주교회가 살아온 기구한 역사의 일면임을 알게 된다.

지금부터 오래 전의 일이었다. 신태인 지방에서는 이런 입전이 내려왔다. 김대건 신부의 ‘숙부와 친동생’이 박해를 피해 임실군 덕치면 회문산 먹구니에 살다가 그곳에 묻혀 있는데, 그중 숙부는 부부동정으로 일생을 마쳤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부부동정생활을 한 것은 숙부가 아니라 김대건 신부의 아우였다는 판 소리가 정설처럼 전해지기도 했다. 이 말을 확신이나 하듯 1964년에 간행된 「천주교 호남발전사」(498쪽)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

“(중략) 이곳은(쌍치면 아천리) 순창 임실 지경인 회문산 아래에 있는 공소였다. 본시 이곳에 몇 집의 교우가 살게 된 것은 피신하기가 적당한 곳이어서, 군란을 피하는 교우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큰 공소가 되었던 것이다. 김대건 신부의 아우 방지거(蘭植)도 이곳으로 피신하여 살았는데, 그곳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지거는 순교자의 유족인 것을 감추기 위하여 일부러 눈을 빼서 소경이 되어 살았다 하며, 그가 죽은 후에 염습하려고 옷을



김도마와 김방지거의 묘

벗긴즉 허리 아래 국부에는 쇠사슬로 얽어 수절한 표를 간직했던 것이 판명되어 교우들을 감동케 하였고, 지금도 그의 무덤이 아천리에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사실과 달랐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주었다. 「천주교 호남발전사」가 출판되기 3년 전 즉 1961년, 전주교구에서는 신태인 본당 능교리 공소 신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두 편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능교리 공소에는 먹구니에서 살다가 농처를 찾아 이곳으로 옮겨온 신자들이 있었고, 또 먹구니의 묘를 별초하였던 노인들이 살고 있었던 까닭이다.

조사는 1961년 5월과 9월에 걸쳐 있었는데, 전주교구장 한공렬 주교의 명으로 신태인 본당신부였던 고 서정수 신부, 그리고 임실 본당신부인 고 김후상 신부의 부탁으로 성심여고 고 김규승 교장이 각각 추진했다. 김 교장은 이름난 등산가여서 특별히 의뢰했던 것이다.

당시 조사 작업은 먹구니에 있는 두 묘를 김대건 신부의 숙부 김도마와 동생 김방지거의 묘로 여기고 묘를 찾아 확인하고 구별하는 일이었다. 이때 유일한 증인은 윤중석(尹鍾錫 혹은 東植·요한·당시66세)이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다음호에 계속>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전주 가구점

최고급 나전칠기 장농·화장대
고급 쇼파·침대

맹 문 희(데레사)
박 병 주(베드로)

전주시 인후동 농고 정문 앞
☎ 84-3984

동서로삼익피아노

종합 악기 판매장
(피아노, 전자음관, 음향시스템 전문매장)

김 태 우(알폰소)
황 진 숙(안젤라)
☎ 88-7717~8
(동서관동로 다가고 입구)

5분 교리 19

“교회의 어머니”

우리들 각자의 어머니는 다만 그 자녀의 어머니일 뿐이다. 그러나 그중에 사회적으로 널리 자선사업을 편다든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할 때 ‘고아들의 어머니’ ‘청소년의 아버지’ 등의 칭호를 대명사처럼 사용한다. 성모님은 아들 예수 어머니인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인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신 특별한 역할 때문에 인류의 영신적 어머니가 되신다. 성모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운명을 지켜보실 때 아들은 당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던 제자를 모자(母子)로 맺어주시면서 서로를 부탁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극진한 사랑과 신앙으로 결합되신 마리아이시므로 아들의 일을 대신 이어받는 교회는 자연히 그녀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또한 교회는 마땅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된다. 자녀로서 닮아야 할 덕행 중 특히 마리아의 신앙과 사랑과 그리스도께 대한 일치하는 교회가 본받아야 할 탁월한 모범이다. ‘교회의 전형인 마리아’, 마리아의 삶은 그대로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시심같이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키고 은총의 성사를 통하여 새로 난 생명을 양육시키며 성령의 능력으로 굳세어져 복음을 전하며, 성덕의 성장을 이루는데에도 마리아를 모범으로 삼는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특히 마리아 공경에 뛰어나다. 물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고귀한 품위를 가지시나 역시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서의 뛰어난 신앙과 덕행의 삶을 기리는 것이므로 마리아 신심에 과장도 경시도 없도록 해야 한다. 1950년 교황 비오 12세는 “지상의 생애가 끝나자 ‘죄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어머니요, 항상 처녀인 마리아는 영혼이 육신과 함께 천상 영광 속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 참고 자료: 시온의 딸(책)

교 구 소 식

※ 어머니들을 위한 영화 상영: 9월21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두 개의 십자가.

1. 주교님 귀국: 9월22일(화) 2. 재무 평의회: 9월24일(목) 오전10시 교구청.
3. 주일학교 책임자 모임: 9월26일(토) 오후2시 가톨릭센터.
4. 전주교구 어린이 어린이랑 잔치: 10월3일(토) 9시30분-17시30분 율호관(구 해성학교).
5. 종교음악연구회 후원회 월례미사: 9월21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4층 연습실.
6. 혼인강좌: 9월27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10,000원, 문의 85-5098.
7.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9월25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김교동 신부.
8. 전화번호 안내: 팔마 성당 FAX (0654)446-9197.

※ 축! 영명: 21일(성마태오) 황인규, 김진석, 유종환, 김진화, 박종택 신부님.

- **성소모임** 가리따스수녀회: 9월27일 오후2시 신동 성당 수녀원 (0653)54-2636.
 동정성모회: 수시로 성소 상담, 문의 (0652)72-5266.
 살레시오수도회: 9월27일 오전11시30분 가톨릭센터 (062)55-0332.
 한국외방선교회: 9월27일 오후2시 광주 가톨릭센터 606호 (02)923-1946.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축산 폐수

대부분의 축산 폐수는 적절한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방류되어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지역별 공동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농촌 환경의 오염을 막읍시다.

<p>안경 콘택트렌즈·금은시계 전주 오거리 천보당 손한성(바오로) 정정님(가타리나) 고사동 오거리 ☎ 84-4138, 253-0707</p>	<p>엑스포 커텐 브라인드·커텐 김정기(플로리아니오) 소미자(디나) 영동동 신일아파트 송죽알로에 옆 ☎ (0653)858-1298</p>	<p>대화 야채 효소 전북지사 체질 개선 김영희(실비아) 관동로 전주백화점 옆 ☎ 231-4280~1 야간 224-8566</p>	<p>태화 신발 백화점 신사화·숙녀화] 총판매장 아동화·특수화 김문식(베드로) 풍남문←→송악국 사거리 중간</p>
---	---	---	--

요십이 (998) 김병오


민자당서울지부에서
4억4천만원을
도난당했구나




그돈은 대통령과
총재가 지구당에
줄 격려금이야.



대통령의 봉급이 얼마인데
어떻게 그돈을
마련했을까요?



혹시 대통령이
재벌 회장 노릇도
하고 있나요?



원형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①판매기간: 8월20일-10월20일
②규격: 8kg당 1박스
③가격: 특 20,000원,대 17,000원
 중 14,000원,소 8,000원
④주문처: (0658)43-0880 사제관
원평 성당 최용준 신부

전주 성심여중고등학교
정기 총회
• 일시: 92.10.3(토) 14시
• 장소: 모교 동창회관
• 회비: 5,000원
동문회장 박금규(마리아)

여직원 모집
• 모집 인원: ○ 명
• 자격: 고졸 이상의
 학력자
 영세 받은 자
• 연락처: (0652)77-3366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성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순교자 대축일.**
 1. 미사시간변경: 10월1일부터, 저녁미사-7시.
 2. 반회장 성지순례: 25일. 연풍성지.
 3. 유아세례: 28일 후3시, 사무실로 신청바람.
 4. 가정방문: 오후2시부터
 22일-인후5만, 23일-인후6만, 24일-인후7만.
 5. 모임: ①빈첸시오(24일 오전10시30분)
 6. 교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교부금 납부에 관심바랍니다.
 7. 금주청소: 중노7,8만.
 차주청소: 중노9,10만.
 지난주 봉헌금: 846,140원 교부금: 747,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본당의 날 행사: 오늘 공식미사 후 나눔의 잔치.
 2. 성지순례: 27일 오전7시 출발, 장소-베티성지, 준비물-미사도구, 도시락, 경노우대권, (본당미사-복전미사(토) 새벽미사 있습니다)
 3. 병자봉성체: 25일(금)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유아세례: 26일(토) 오후7시,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5. 회합: ①성우회(공식미사 후) ②제대회(24일 오전10시) ③빈첸시오회(26일 오전10시)
 "축" 결혼 26일 오후1시, 신랑-이 프란치스코군, 신부-김로 사영.
 금주전례: 유복규, 독서-강익구씨 부부, 봉헌-나유순씨 가족.
 지난주 봉헌금: 603,000원 교부금: 797,3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욱

- ※ **오늘은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성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순교자 대축일.**
 1. 청년회: 공식미사 후, 2.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전교를뜨레아: 27일 잠실 체육관, 4. 무료 한방진료: 10월4일 공식미사 후, 5. 성서읽기: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수녀원 신축헌금: 금주봉헌-5,962천원, 총액-24,242천원, 6. 성서읽기: 역대기하 1장~20장 8. 청소년사: 친구의 모친Pr. 9. 금주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유순철 ②김미남, 봉헌-한동욱, 화육섬세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강덕용 ②강경자, 봉헌-양재철, 김대권씨 부부.
 지난주 봉헌금: 322,830원 교부금: 376,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욱

- ※ **오늘은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성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순교자 대축일!**
 ※ **축! 영세식!!**: 오늘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신 영세자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주님의 은총이 abundantly 시킬 믿니다. 1. 회의: ①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2. 모임: ①전례부-9월24일(목) 오후8시(전례부원 전원 참석바랍니다) 지난주 봉헌금: 769,250원 교부금: 730,000원
 3. 알릴: ①봉성체-9월33일(수) ②93년도 월력광고 신청(9월27일까지 선착순) 전입, 전출자는 필히 교적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첫 영성체 및 어린이영세-10월3일(토) 어린이미사 중에 있습니다(부모님들 관심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 매년 "구정" "추석" 두차례씩 인명으로 불우이웃 성금을 보내 주신분께서 금년추석에 20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축! 본당의 날: 나눔과 일치 의 체육대회.**
 2. 첫 영성체,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3. 추석 명절에 재대에 햇과일 봉헌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수요성서 공부: (오전10시, 오후8시30분) 성서를 생활화 합시다.
 5. 수요일 미사: 저녁8시로 변경합니다.
 6.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7.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뜨게질에 관심있으신분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실 제공)
 8. 다음주 공식미사 후: 율뜨레아, 요셉회, 사사회 모임 있음.
 9. 청소년사: 5구역 1만, 2만.
 지난주 봉헌금: 561,100원 교부금: 960,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 **축! 영세**: 주님안에 하나되신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축! 배에따회(자립봉사단)창립**
 회장: 신옥철(가타리나) 부회장: 권영례(테레사)
 총무: 김경자(미카엘라) 서기: 조점옥(마리아)
 1. 금주: ①영세식(공식미사 중) ②바니의 성모 푸리아(후2시)
 2. 성회: 21일(월) 오후6시, 지난주 봉헌금: 1,861,330원
 3. 철야기도회: 25일(금) 오후11시.
 4. 차주: ①성마리아 꼬미시움(후3시) ②전국 율뜨레아: 새벽4시30분 집결, 장소: 서울 잠실경기장, ③교부금 납부유일.
 5. 감사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10만원(하늘의 문Pr) 지하수개발원금: 성가정회 800만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 ※ **본당의 날 (축):** 주보성인-성 정문호(발도로메오)
 1. 전국 율뜨레아: 27일 전5시 출발, 준비물-갈집이 목주.
 2. 봉성체: 24일 전9시, 환자를 모신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3. 가정방문: 22일 전9시-1구역1,2만, 후2시-1구역3,4만, 25일 전9시-2구역1만, 오후2시-2구역2만, 반회장 동행.
 4. 예술의 밤: 26일 후8시30분, 중·고생 발표회.
 5. 빈첸시오: 26일 전10시30분, 전입신자 가입을 환영 합니다.
 6. 어린이 어린이영 잔치: 10월3일 율호관, 부모님의 관심바람.
 7. 신혼조할 관광 교육: 25일 전7시, 장소-마산동성, 7,500원.
 8. 교부금 봉헌 주일: 27일 주간, 신자의 의무를 다합시다.
 9. 회의: 성가대 월례회-23일 어머니미사 후, 회원가입 환영.
 지난주 봉헌금: 1,009,710원 교부금: 1,040,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자모회: 오늘 미사 후,
 2. 반모임: 22일(화)오전-성원골드, 오후-한양უნ남, 저녁-삼경1,3동, 23일(수)오전-화산1, 오후-신일,
 3. 청년회: 다음주일 미사 후,
 4. 중고생 자전거 하이킹: 10월3일(토) 구이 저수지,
 5. 예비자 교리반 모집: 9월30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주시시오.
 6. 금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오경애, 전만재.
 차주전례: 이완자, 독서·봉헌-이정숙, 김계영.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사목회장이 동 섭

- ※ **오늘은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성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순교자 대축일.**
 1. 모임안내: ①전교를뜨레아(출발일시-9월27일 05시)30분, 출발장소-광진목화A사거리, 장소-서울율림픽체조장, 회원 전원 참석바랍니다. ②꼬미시움-26일(토) 오후3시.
 2. 미사안내: 금주-바다의 별, 매개의 모후, 차주-신자들의 모후, 동경리의 모후.
 ※ **오늘 부궁에 고추 공급합니다.** 신청자는 사무실로 오세요.
 지난주 봉헌금: 1,368,47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성지순례: 27(일) 오전7시출발, 장소-해미성지, ※ 미사시간-10시30분 공식미사와 7시 저녁미사 있음.
 2. 모임안내: ①반석회,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저녁미사 후 ③반회장회합 준비모임-25(금) 10시미사 후,
 3. 유아세례: 26(토) 오후3시,
 4. 가정방문: 23(수) 오후2시 환신1만, 25(금) 오후2시 환신2만. 금주해설: 해설-이한은, 독서-①함영준 ②조선옥 봉헌안내-송수환 부부, 김성택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낙원, 독서-①나귀준 ②박윤자.
 지난주 봉헌금: 1,265,710원 교부금: 1,498,000원